

낭만주의 영미문학에 나타난 자연*

— 위즈워스와 소로우를 중심으로 —

변 창 구**

위즈워스(William Wordsworth)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기에 창작활동을 한 시인이다. 인간의 이성의 총아인 과학 및 기계문명의 발전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기계문명이 초래한 인간사회의 비인간화와 소외는 그 부작용의 첫 번째였다. 동시에 환경오염과 천연자원의 고갈, 자연파괴는 산업 혁명의 부산물이었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의 황폐와 인간의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는 코울리지를 통해 독일 이상주의를 접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목격하면서 창작활동을 한 위즈워스에게 인간과 자연의 문제는 당연한 관심사였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자연은 사회의 구조물이며, 인간의 의식이나 자연계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어서 자연계의 변화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를 성찰해 보려는 위즈워스의 자세는 당시의 첨예한 문제였던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인간의 인간에 대한 비인간화, 소외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즈워스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성찰해 보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자연계에서 인간의 위치와 그 관계를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과제(3년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KRF-1998-005-B00103).

** 서울대 영문과 교수

생각해보자는 시도는 생태 문예학의 시발점이 되며, 워즈워스와 소로우(Henry David Thoreau)는 근대 서양에서 이러한 시도를 한 최초의 작가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워즈워스의 시이에 대한 기본 인식은 바로 시인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잘 만해준다. 그는 시인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개인”이라고 말하면서 시인은 “마음의 근본적인 정열”을 전달해야 한다고 『시정시집』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하트만(Hartman)이 워즈워스의 『시시(The Prelude)』에 드러난 회자로서 작가의 의식을 분석하면서 워즈워스와 자연의 긍정적 관계 및 이와 상상력이 맺고있는 다양한 상상들을 논함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소명이 남나름을 밝힌 그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¹⁾ 즉 그는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려함으로써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려했고 이는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시인의 반발과 무관하지 않다. 언어의 인식을 경험케 하는 매체로서의 한계를 인식한 그는 시를 통해 자연과 마음의 진정한 연결을 꾀했다.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경우 19세기 초 미국이 지나치게 물질주의 중심으로 팽창정책을 펴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러한 팽창중심 정책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인간이 자율성에 기반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 하였다. 당시 미국은 팽창을 주요한 과업으로 삼고 서부개척과 자연훼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소로우는 자연의 생명 파괴에 무감각한 사람들의 비인간성, 잔혹성을 비판하고 양심에 기초한 자연보존의 삶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가 고향의 산 속 호수가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그 이야기를 묘사한 『월든(Walden)』은 에머슨의 『자연(Nature)』와 함께 19세기 자연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의 『월든』은 작가의 자전적 삶의 성찰,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 자연에 대한 소상한 기록 등으로 읽혀왔으나, 최근의 생태학적 관심은 이 작품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잘

1) Geoffrey H. Hartman, *Wordsworth's Poetry 1787-1814* (New Haven: Yale UP, 1964), xii.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자연은 이들 두 작가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각성”시켜주는 중요한 매체였다. 특히 이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연글쓰기를 시작한 작가들로 거명되는 것은 이들이 자연과 인간의 유리를 가장 첨예하게 느끼고 자연의 타자성을 인식하면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즉 자연계의 현상과 그 의미가 어디까지 이해되던 것과는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만해준다. 작가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직감하면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자아의 발견과 발전을 도모하고, 주위와 자아 사이의 간극을 인식할 때 자아인식이 더욱 치신해진다고 보았다. 이들이 지음으로 시도했다고 평가받는 자연글쓰기는 “자연에 대해 말을 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자연을 어떻게 보는지,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다”²⁾라고 정의된다. 즉 자연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는 소로우의 『원는』의 제 2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재각성시키고 깨어있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는 말을 연상시킨다. 결국 소로우에게 자연 글쓰기는 자연계 속에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한 행위였다. 이러한 자신의 위치 파악의 필요성은 숲이나 자신의 글쓰기 과정에서 길을 잃을 위험과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임을 암시한다.³⁾

낭만주의 작가들의 자연글쓰기에서의 자연관은 자연과의 관계, 상호의존, 자연에 대한 동경 등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위즈워스와 소로우에 대해 자연 친화적, 또는 자연 적대적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두 작가의 자전적 실재와 상상력 및 자연에 대한 여러

2) Sharon Cameron, “Writing Nature: Henry Thoreau’s *Journal*,”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New York: Oxford UP, 1985), 351쪽.

3) Michael P. Branch, et al eds. *Reading the Earth: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Literature and Environment* (Moscow, Idaho: U. of Idaho P, 1998), 166쪽.

업적들의 결과라 한 것이다. 워즈워스 자신은 자신을 “자연 시인(Poet of Nature)”라고 생각했으며, 셸리도 그를 간이 불렀다. 이러한 워즈워스에 대한 생각은 19세기 내내 그렇게 여겨졌고, 독자들도 같은 관점에서 그를 보았다. 또한 소로우는 『월든』을 대표작으로 자연에 대한 남다른 역정을 가지고 자연 속의 삶을 찬양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정립하여, 이미 불어오기 시작한 도시화 및 인간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시가 인간과 자연의 기율 역할을 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한다고 보았던 워즈워스와 소로우는 자연을 어떻게 묘사하였으며, 관점은 무엇이고, 그 특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워즈워스의 경우 『서시The Prelude』의 첫 부분은 자연의 삶의 자신의 내면의 삶의 상응관계와 외계와의 교감이 인간의 내면을 살찌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시』는 시인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을 회상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왜 우리가 자연을 상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시대이지만 과학은 인간과 자연을 신명하는데 그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인간이 나와 환경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어떠한 기능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과학이 제대로 신명해줄 수 없자 이를 의식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졌다.⁴⁾ 워즈워스의 『서시』는 시인이 예전에 보았던 경치를 자세히 보여주지도 않고, 자연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언덕과 골짜기의 형태에 대한 인식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생물 — 담불, 시냇물, 강 — 의 모습들을 볼뿐이다. 그리고 이 시구는 생명을 부여하는 정령, 즉 미풍에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즐기움의 원천이 된다.

오! 이 아름다운 미풍에는 축복이 깃들어 있네,

4) Karl Kroeber, *Ecological Literary Criticism: Romantic Imagining and the Biology of Mind* (New York: Columbia UP, 1994), 18-19쪽.

미풍이 내 뺨을 시원히 해주는 동안
이 순례자는 자신이 푸른 초원과 쪽빛 하늘에서 가져온
즐거움을 다 알지도 못하는 듯 하네. (1, 1-4)

이 미풍이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짓게 해주는 영감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한다. 창조적인 삶을 새로이 생기게 하는 마 이는 비록 계신은 봄이 아니더라도 봄의 생명력을 주는 것이다. 이 미풍은 마음을 열어주고 음악과 운문의 성스런 삶을 잉태하는 것이다.

시인에게 자연의 경험은 기억으로 남아 현재를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침이 된다. 시인에게 자연은 엄청난 “축복”이었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은 서로가 일체감을 갖게 되면서 상응효과를 가져온다. 자연은 단순히 기쁨만을 주는 게 아니다. 자연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인은 어린 시절 남의 새를 훔쳤던 일이 있다. 이 경험은 시인에게 아름다움과 공포를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자연을 탐닉하게 되는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연을 파괴하기도 한다. “강한 욕망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을 때 그는 친구들이 저 놓은 욕가미에 걸린 새를 자신의 “포획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못된 일을 저지른 후 그는 자신의 반 뒤꿈치를 딸라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한다. 자연은 단순한 의식 없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위협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따라오기까지 하는 하나의 인격체와 같다. 자연을 의인화하고 인격화하는 것은 자연이 인간과 동류이며, 인간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즐기워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자연은 의인화하여 못된 짓 — 자연의 심리를 거슬러 행동 — 을 한 소년에게 꾸짖는 것이다. 시인은 다른 부분에서 훔친 배를 타고 한밤중에 강을 거슬러 가모았다. 그러자 산봉우리가 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소년은 곧장 배를 원위치시키 놓는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에게 자신들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체로 대해줄 것은 요구한다. 위스워스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을 인격체로 대할 때 자

연이 가슴속에 와 닿는다고 말한다.

『서지』는 시인이 인간에 대한 신념을 잃고 혼란 속에서 방황하던 시절 그에게 찾아와 이런 시절의 기억을 기사로 그를 구원한다. 수선화가 시인에게 구원의 의미를 지녔듯이 이런 시절은 시인에게 인간을 신랄하게 하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

반죽하지만 이 정열에서 잠시 벗어나고픈
마음은 없어서, 경계하면서도 열심히,
난 발걸음을 옮겼네. 드디어, 난,
푸른 잔디광장에 다나왔네. 난 나무
밑에 앉아, 상념을 늦추면서
행복함에 빠져들었네. (I, 59-64)

와이강의 경지와 가지런히 흐르는 강의 폐턴은 세상의 선함을 말해주는 듯하다. 시인의 눈에 비치는 사물들이 나름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조화와 통일성이 와이강의 골짜기를 매우고 있다. 오두막집 앞의 푸른 잔디는 집 앞분까지 펼쳐있고, 오두막집 마당과 숲의 조화로운 모습, 생명력이 넘치는 광장과 조용한 하늘이 마주치는 높은 신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존재하고 있다. 워즈워스에게는 와이강의 골짜기와 하늘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만해주었다. “블레이크처럼, 워즈워스는 대단한 현상론의 대가이다. 특히 그가 외면에서 내면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⁵⁾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골짜기는 완벽한 소우주이다. 울퉁불퉁한 바위들, 숲, 호수와 가운데 있는 섬, 교회와 오두막집, 무지런한 산골짜기 사람, 목동, 남편과 같이 심은 나무 밑의 오두막집의 과부, 절름발이와 그의 회색빛 조랑말, 올빼미, 장엄한 독수리, 호수위를 날고있는 갈매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영원히 조화로운 방식으로 웅장하게 춤추고 있는 (2. 201-203) 풍경이다. 시인은 외부로부터 수용한 여러 감각들을 자신의 마음에서 조합하고 연결하여 나름의 연상을 통해 환희의 순

5) Harold Bloom, 143쪽.

간을 갖는다.

이들 모두는 사람이라는 끈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는 골짜기의 아름다움과 골짜기의 완벽한 형태가 아우리셔 시인에게 삶의 충만함과 선함을 확신시켜 주었다. 조화의 골짜기에서 자연의 삶과 인간의 삶이 서로 교접하면서 와이강의 흘러가듯 평화롭게 어우러진다. 이는 나아가 지상의 것 과 천상의 것, 이상과 영원한 것이 어우러진다.

워즈워스가 파라는 것은 실제의 우주 가운데 사색과 감정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간히 한 마디 하게 해주오,
고상한 말씀은, 이제 나는 느낀다,
어떤 위로가 내게 다가왔는지,
주위환경의 상쳐주는 휘둘림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젊었을 때 얼마나 변했으며,
상성하면서 얼마나 변할 지를. (III, 99-104)

워즈워스에게 자연은 바위, 돌, 나무가 상상력에 의해 변형하여 의미 있고 상징적인 사물로 화하는 곳이다. 자연계는 사색의 세계이다. 이 곳에서는 개인의 마음이 홀로 작동하지 않고, 다른 사물들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세계관이 조성되는 곳이다. 인간 마음의 창조력은 신의 창조력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상상력에 나뉘지 않는다. 이 상상력은 가장 고양된 형태의 이상의 작동이다. 인간이 산을 오르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기쁨과 비전의 신과 같은 상단에 닿는 것이다.

시란 “강한 감정의 자발적인 분출”이라고 시인은 말했다. 미풍에 흔들거리는 수선화를 보았을 때 시인은 그들과 같이 하고픈 욕구를 일으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외로운 자신도 잊어버리고, 아침의 다양한 풍경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산천이 즐거움을 배가한다.

자주 멎하니, 사색에 잠기서,
 난 카우치에 홀로 누워있으면,
 고독의 친구인 마음의 눈속으로 수선화가
 반짝이며 나를 찾네.
 그러면 내 마음은 기쁨에 기워,
 수선화와 같이 춤을 춘다네.
 (“난 구름처럼 외로이 기닐었네”)

시인은 과거에 자연을 산책하나 마주쳤던 수선화를 회상하면서 작가는 좀더 객관적인 자세로 마음의 눈을 열고 나름의 깨달음을 얻는다. 즉 자연 — 수선화 — 이 그에게 준 의미를 알게 된다. 자연의 대상물이 시인의 정신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인은 대상물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의미의 창조자가 된다. 시인의 마음에서 자연 속의 수선화는 시인과 관계를 맺는 주관적 의미를 지닌 수선화가가 된 셈이다. 수선화를 보고 받은 감동을 되새김하면서 시인은 시인과 하나의 주체로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시인에게는 “우주는 단순히 별개의 사물들의 집합체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만 인지된다.”⁶⁾ 이처럼 자연은 시인에게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를 말해주는 생명체의 역할을 한다. 수선화는 “마음의 눈 속으로” 들어와 가슴속에 자리하고 간이 공감대(“춤”)를 형성함으로써 눈앞에 전개되었던 자연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인간의 삶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그것의 회생을 바탕으로 얻어진 생산품을 활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이 단순히 인간을 위한 편의의 수단이 될 때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서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볼 때 놀란의 소화는 깨어지고, 자연은 인간에게 보복을 해올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자신들의 이해의 관점에서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현상에 대한 위즈워스의 생각을 보자.

6) Geoffrey Durrant,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London: Cambridge UP, 1970), 99쪽

우리는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아침 저녁 벌고 쓰노라 힘을 허비하고,
우리의 것인 내자연에도 거의 시신을 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미열한 혈액에만 쏟는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세속에 물들어 인상에 파문된 일반인들은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자연과의 교감의 중요성을 아는 시인에게 세속은 반 자연적이고 이기심이 만연해있는 혼란의 황무지이다. 자연은 대상물에 생명과 새로운 감흥을 부여한다. 시인이 대상과 거리를 두고 관조할 때 외재적 자연은 내재적 의미를 지닌 자연으로 화한다.⁷⁾ 세속적 삶은 자연에 대해 눈을 감고 감옥처럼 감동을 잃고 고립되어간다. 시인은 우리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자연과 대화할 것을 종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과 조화를 상실하고 교감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연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즉 세속에 물들은 시인에게는 이제 예전의 자연이 주던 교감은 사라지고 우울한 상념만 남아있다. 왜 자연의 즐거움이 사라졌는지 하는 이유는 인간은 자라면서 영광의 빛을 잃고 일상에 몰입하기 때문이다. 성장은 무언가를 배우고 얻는 과정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는 과정이다. 시인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던가. 순수한 마음의 시인에게 자연은 "오, 자연이여!"하고 외치게 만든다. 자연 속에서 순수한 사랑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고 일체감을 느끼는 시인은 어린 시인이고 세속에 물들게 되면 그러한 감동은 사라지고 차가운 이해타산만 남아있다.

작가는 이 시에서 효용성 중심의 사고방식의 해악을 잘 보여준다. 효용의 추구는 인간의 상상력과 대조를 이룬다. 효용추구가 실리적인 데 반하여, 상상력은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에 자리한 원초적 창조능

7) James A. Heffernan, *Wordsworth's Theory of Poetry: The Transforming Imagination*. (Ithaca: Cornell UP, 1969), 267쪽.

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워즈워스는 상상력을 효용성과는 반대편에 있는 천연 그대로의 자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자연은 효용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를 지니는 존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관은 현대인들의 효용 중심의 자연관과는 다른 고대 그리스인들의 총체적 존재로서의 자연관과 맥을 같이한다. 워즈워스는 물질만능의 자연관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신들을 찾고 싶어한다.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삶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의 도구적 이성에 의한 산업발달은 인간을 좀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했는지는 몰라도, 그 결과 인간이 분당과 산업발달로 인해 이의 노예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이러니를 야기했다. 인간 지능의 발달과 기계문명의 발전은 자연을 인간욕망충족의 수단으로만 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오히려 자연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맞게 됨을 시인은 강조한다. 그의 이 같은 낭만적 자연관은 인본 고기에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연을 단지 기계론적으로 보고, 이를 오로지 효용 가치의 측면에서만 본 결과는 이미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비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소로우가 월든 숲에 들어가 나름의 실험적 생활을 한 사실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연을 접한다는 것의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그는 연못가에서 혼자 살고 싶은 욕구와 책을 쓰고, 경제적 자립도 시도해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은 그에게 소중한 “님”으로 자리하게 된다.⁸⁾ 즉 인간에 대한 유용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는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의 기본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중심주의의 비판인 셈이다.⁹⁾ 인간을 포함한 자연 속의 모든 생명체의 유기적

8) F. W. Bateson, *Wordsworth: A Re-Interpretation* (London: Longman, 1954), 42쪽.

9) Cheryll Glotfelty & H. Fromm, eds.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Athens: U. of Georgia Press, 1996), xix.

연관성과 그 생명권의 평등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는 우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소로우의 태도는 경험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려 함이었다. 자연을 지배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갈 기대한 유기체라는 인식이 그 중요한 과업이었다. 이를 통하여 그는 정신적 발전을 이루고, 물질적 삶의 한계를 초월함으로써 새로운 진실을 탐구하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이다.¹⁰⁾ 그의 이러한 삶의 실험은 “삶의 근본적인 사실들을 직면하기(61)” 위함이었다.

소로우는 『월든』에서 아름다운 경치의 소유자는 땅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예전의 관습이나 지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연을 배우며, 나아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였다. 자연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자 했던 그는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세밀히 관찰하여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아인식에 다다른 과정을 담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을 유기적 총체로 보기 시작했다.¹¹⁾

그에게서 월든 연못에서의 경험은 실험적 삶으로서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삶의 의미발견을 시도했던 경우이다. 그는 숲에 들어가 숲을 경험하면서 대화를 나눈 셈이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고 더불어 살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때 집이란 바로 인간이 거처를 정하고 자리잡은 곳 이외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고 말한다. 경치가 창조적 발현이라는 사고가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에 귀의한 이후에는 그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경치의 중심에 서더라도 그는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체들과 상호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10) Richard J. Schneider, "Walden," *The Cambridge Companion to Henry David Thoreau* (Cambridge: Cambridge UP, 1995), 97쪽.

11) Robert D. Richardson, Jr. *Henry Thoreau: A Life of the Mind*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1986), 181쪽.

내 집에는 무던히도 많은 친구들이 있다. 특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침에는 더욱 그렇다. 나의 처지에 대한 개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비유를 들이 보겠다. 마치 옷은 것 같은 특유한 울음을 큰 소리로 우는 호수의 서 뱀장오리가 외롭지 않듯이, 그리고 원근 호수가 외롭지 않듯이 나도 외롭지 않다. 저 고독한 호수가 도대체 어떤 벗들을 가지고 있던 말인가? ... 그리고 새로 지은 집에 자리잡은 첫 번째 거미 — 이런 모든 것들이 외롭지 않은 것처럼 나도 외롭지 않다. (160)

이 인용의 표현이 시사하듯이 그가 직접 경험하는 자연은 너무나 감각적이고 직접적이다. 그는 자연의 중심에 있으면서 자신이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의 한 구성요소임을,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과 동반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자연과 친밀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소속감을 느낀다. 이러한 모성애적인 자연은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바탕인 셈이다. 인간은 이성으로 이루어진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처럼 본능적인 욕망과 야만성마저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포근함은 그 속에 생명력이 넘쳐 우리 인간을 활기있게 하면서 풍요를 약속할 것임을 말해준다. 작가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동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이다.

숲 속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는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연관성을 더욱 진감하고 나아가 자연을 생명을 지닌 문물직 존재로 느끼기 시작한다. 자연은 단순히 객체가 아니라 교감을 나누는 대화의 상대로 다가오는 것이다. 비마람이 치는 날 소보우는 이 숲이 그에게 나성한 교제, 가장 순수한, 격려하는 교제의 내상이 됨을 느끼고 놀란다.

그러나 자연은 나를 유인하여 숲속에 쌓인 깊은 눈 속에 길을 내게 만들었다.

내가 한번 눈을 밟고 지나가면 내 발자국 속으로 띄간나무 잎들이 바람에 불려 들어가 자리를 잡았으며, 이 잎들은 햇빛을 흡수하여 눈을 녹여서는 걸어 다니기에 알맞은 바른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또 밤에는 이 발자국들이 검은 신처럼 보여 길을 가는데 안내 역할을 하

기도 했다. (292)

햇빛과 눈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시인은 더불어 살기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는 이제 자연과의 친근감에서 귀속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연은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바탕임을 깨닫는다. 황량하고 쓸쓸해 보이는 곳에서도 부연가 그에게 만을 건네는 친근함과 생명이 있음을 인식한다.¹²⁾ 자연이 그에게 주는 친근감은 물질적 욕망을 버리고 자신을 자연과 일치시켜야함을 암시한다. 이는 단순히 농식물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흙과 같은 무생물과도 일체감을 가질 것을 의미한다.

소로우는 자연계가 질서정연하지 않지만 혼동의 세계가 아님을 깨닫는다. 자연계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인간이 수용할 때 인간도 자연과 일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예로서 우리는 생쥐가 번식력이 강한 소나무를 갉아먹는 것을 보고 소나무와 다른 나무들간의 균형잡힌 어울림을 위한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는 작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생태계를 지배하는 진서의 파악은 자연 현상을 세밀히 관찰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태계 진반을 조망할 때 가능한 것이다. 『월든』에서의 작가는, 우리 인간이 단순히 외면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너머의 정신적 의미와 자연계 너머의 진리를 인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관찰 대상의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이를 자연계의 진서 혹은 섭리로 인지한다.

반물의 옆에는 그것들의 존재를 형성하는 어떤 힘이 있다. 우리들의 바로 옆에서 가장 중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끊임없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우리들의 바로 옆에는 일꾼이 있다. 그 일꾼은 우리가 고용하고 우리가 항상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일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일감으로 삼아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어떤 큰 일꾼인 것이다.

12) Lawrence Buell, *The Environmental Imagination: Thoreau, Nature Writing, and the Formation of American Culture* (Cambridge: Harvard UP, 1996), 169쪽.

“천지의 오묘한 힘의 영향은 얼마나 넓고 깊은가! ...
사색을 함으로써 우리는 건전한 의미의 열광 속에 빠질 수 있
다.(157)

작가는 단순히 호수 속의 물고기의 모습에 감탄하거나 그 특징을 관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탐구의 단초가 되는 호수의 깊이, 물고기의 특징, 이들의 생활 등에 대해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해 자연계를 조망하는 디딤돌로 삼는 것이다. 자연속의 사물을 단선적으로 보지 않고, 복합적 시각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는 소로우의 태도는 나름의 자연관을 보여줄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즉 자연을 환경과 조화의 전령으로 보고 이를 자신이 닮으려 노력해야 함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다. 주위 환경과 삶의 유기적 관계를 유추하는 일은 자연을 다시 보게 만들고 인간이 자연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할지를 훈계한다. 자연을 체험하고 이를 관찰하여 그 속에서 철학적 사색을 이끌어낸다.

소로우는 미국은 초원을 확장할 때 더욱 강해지고 일면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 가장 중요한 승리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덩불제거기, 벧장 절단기, 삽, 늪지대용 팽이라고 말했다.¹³⁾ 소로우의 자연관은 소로우가 외계의 현상과 상상속의 삶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개인을 지향하고 있었다.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지만 소로우는 환경과 정신 개혁의 전통을 글을 통해 시도했다. 피츠버그에 사는 독일계 이민 옛즐러 J. A. Etzler가 쓴 “노동없이, 자연과 기계력에 의해 누구에게나 가능한 천국”(1833)은 잭슨 대통령이 유포피아를 건설해주시길 바라면서 쓰여진 것이었다. 이 글에 대해 소로우가 평을 썼는데, 인간의 의지가 힘해지면 10년 내로 지상에 천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인 옛즐러는 “자신의 모습 전체가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바뀔 것이며, 인류는 가장 훌륭한 궁전에서 매우 호화롭게, 가장

13) Henry D. Thoreau, “Walking,” *The Portable Thoreau* ed. Carl Bode (New York: Viking, 1964), 615쪽.

감미로운 정원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고 진방했다. 이 계획은 자연을 변형시키는 것이 골자였다 즉, 산을 평평하게 하고, 골짜기를 저수지화 하며, 늪과 소택지를 개간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로우는 이러한 계획을 자연과 환경을 개혁하려는 충동 등, 기계적 초월주의라고 칭했다. 동시에 그는 윤리적 초월주의자들이 자연을 개혁할 때 자연과 환경은 더욱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만했다.¹⁴⁾

소로우는 사람들이 지상에 아름다운 집을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삶을 추구하려하지 않음에 개탄한다. 그는 자기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을 만들려는 영웅적 노력을 독자에게 주문한다. 소로우의 상상력은 엡즐리의 글을 읽고 더욱 풍부해지고 확장되었다. 소로우는 자연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바람, 햇빛, 조수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소로우는 기계를 이용한 자연의 개선에 대해 회의적인데 이는 엡즐리의 견해와 다른 점이다. 소로우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기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이는 『원든』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그는 최신 반명품을 써서 자연을 활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균면을 바탕으로 소박하게 자연을 일구고 가꾸면서 자연과 화합하는 삶을 추구했다. 기계적 제도에 의해 실존적인 힘의 행사보다는 인간의 내면생활을 윤리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했다. 소로우에게는 엡즐리의 방식은 인간의 친박한 편안함과 쾌락에 주안점을 둔 하책이었다. 도덕적 개혁이 있어야 하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로우가 낭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개인의 상상력과 외계와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낭만주의자의 성향을 보여주는데, 이를 그는 정신 및 환경상의 개혁과 접목시킨다. 현대의 관점에서 소로우를 조망하면, 그가 물질적

14) Henry D. Thoreau, "Paradise (To Be) Regained," *A Yankee in Canada* (1892, rpt., New York: Greenwood, 1969), 182-205쪽.

유토피아에서의 인간의 소외에 대해 한 말들은 매우 예언적이다. 정신적 각성이 없이 물질적으로만 풍부한 문화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세계에서의 물질적 풍요 추구와 이것이 인간의 만족을 가져온다는 풍조에 대해 소로우는 개인의 내면 생활의 개혁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개인의 내면으로부터의 도덕적 개혁만이 외계의 확실성을 넘어서서 다양성과 개변성을 추구할 수 있고, 물질 만능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이었다.

월든 연못은 도시와 자연의 경계지역으로서 카니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 시각이 가능했다. 소로우는 이러한 연유로 제 3의 진공영역인 연못가에 거주함으로써 자연을 통해 자신을 깨닫으려는 것이었다. 인 모래티미가 녹아내리고 그러면서 철로가 허물어지는 광경이나 얼음이 녹아 연못에 떨어지고 기러기가 비리위를 울며 지나가는 등의 자연의 역동성을 통해 자아와 삶에 대한 교훈을 얻자는 것이 주임무였다. 그에게 연못은 자신과 동등한 개체로서 또한 인간이 필요한 음식과 목욕의 장소 등을 제공하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었다.¹⁵⁾

한 여름 오후, 창가에 앉아 있노라니 메들이 나의 개간지 위를 병 병 돌면서 날고 있다. 산비둘기가 두 마리씩 세 마리씩 내 시야를 가로질러 날아가고... 물수리 한 마리가 기울 같은 호수의 수면에 산문 걸을 일으키며 물고기 한 마리를 채가지고 날아 오른다. ... 나는 반시간 전부터 보스턴에서 손님들을 실이 나르는 기차의 비퀴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 나는 ...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135)

자연 속에 자리하고, 감각을 다 사용하여 온갖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소로우는 자신을 성찰한다. 위의 예문이 말해주듯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소리로 전달되고 그 의미의 유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연못과 새, 그리고 물고기들에게서 작동하는 소리들이

15) Buell, 208-209쪽.

그에게도 작동하고 있음을 그는 발견한다. 소로우에게서 우리는 과학자간은 이성적 관찰과 시인의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상념 사이의 괴리를 보곤 한다.

인음이 녹고 늪에서 청개구리가 머리를 내밀고, 유제화가 꽃피고 야생 기러기들이 북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에서 소로우는 우주 창조의 질서가 그의 눈앞에서 일어남을 보았다.

소로우는 1837년 하버드대학 졸업축하 모임에서 부유를 행복적으로 남자답지 않게 사랑하는 것은 상업주의 정신을 낳게 한 기본 정신이라고 경고했다. 사람들도 하여금 그들의 본성에 충실케 하고 도덕성을 개발하면 더 이상 상업주의 정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 것이라고 충고했다.

미국문화에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흐름이 흐른다. 즉 하나는 미국은 성경의 예언에 어울리는 구원의 나라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계속 시민을 받으면서 단련되어 자신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라는 것이다. 개인과 자연의 중요성 강조는 미국의 환경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었다. 그는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알맞게 개간 하되 지나치지 않아야 했다. 즉 『월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보존되면서 자연을 기꾸는 방식을 선호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야생의 자연을 보여주지만 매우 문명화된 면과 이에 대한 작가의 선호를 보여준다. 그의 집은 콘코드와 린컨이라는 마을 사이의 숲에 위치하며, 제제소의 채목으로 지어졌다. 또한 철도가 아주 가까이를 통과한다. 마을에서 공공행사가 있을 때는 종말에 있으면 축포 소리와 행진곡까지 들을 수 있다. 가끔은 작가는 콘코드에서 보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일화를 회상하고, 월든 언덕 근처에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을 회상하기도 한다. 하루길너 또는 매일 소로우는 숲에서의 삶과 연관있는 마을 순례를 위해 콘코드에 가곤 했다.

물론 소로우는 이 이야기 속에 아이러니와 쓰디쓴 비탄만을 행동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는 태형을 만을까봐 콘코드를 볼레 드나들기도 한다. 그리고 군대 행진곡은 그로 하여금 스핑크스 두더지를 창으

로 찌르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한다. 오래된 집이 넓어가자, “애당초도 다. 이 인간들은 경치를 아름답게 하는데 하는 일이 없구나”라고 말한다. 그가 미국의 도시생활과 그 가치에 대해 아이리닉한 시선을 보여주지만, 소로우는 콘코드부근의 전형적인 환경의 다듬어진 형태가 필요하다. 그의 천학적 사색은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눈이 오거나 또는 밤에 찾아온 여행객은 마을에서 그가 거주하는 숲 속의 십까지 찾아갈 수가 없다. “지리적 안정을 위한 자리에서 세속을 잊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천학적 사색이 가능해진다.” 그는 마을의 십이나 강의실에서 나와 숲 속의 아늑한 항구로 나아갈 때 킁킁하고 비바람 불아치는 밤길에 몸을 던질 때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반면, 자연 그대로의 숲이 사색을 위한 촉진제가 되고 자연을 찬미하게 됨은 다듬어진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두디지를 잡아서 날 것으로 먹고 싶은 야만적인 욕망에 사로 잡혔을 때, 고상하면서 정신적인 삶과 원시적이고 미열하고 야만적인 삶을 향한 욕구를 동시에 느낀다. 그는 야만적인 것을 선한 것 못지 않게 둘을 같이 흠모한다. 원근 숲의 계절이 봄이 되면서 마을에서의 삶의 정체성을 탈피하기 위해 인간은 야생이라는 강장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연 현상이 “신비스럽고 이해가 어려우며”, “무한대로 제멋대로이면서 측량이 안되어 있고 헤아릴 수 없다.” 그는 “무진장의 원기와 광대하고 나이트메릭 같은 모습들”에 대해 말한다. “자연은 너무 삶으로 충만해 있어서 서로의 먹이가 될 수 있게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한 생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말한다. 소로우의 부대는 조용한 늪지이며, 그가 자주 예를 드는 동물들은 물새와 조그만 멧돼지류이다. 또한 자연의 은밀한 곳에 대한 사색은 명백하게 불가적이다. 약육강식의 예는 올챙이, 누꺼비, 죽은 만의 시체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로우의 시술이 기창하지만 예를 조그맣고 가정적인 것으로 채움으로써 제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의 자연은 야생적인 것과 문명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둘의 조화가 소로우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소로우에게 엄청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애플리를 비판할 때의 물질적 친국만큼이나 그의 상상력을 가로막는다고 인식되어왔다. 자연이 사색의 촉진제가 아닌 방해제가 되는 지리적 경계가 엄연히 존재했다. “제탈취해야 할 낙원”에서 “선한 사람은 진방을 희생하면서 언덕을 평평하게 하기 위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사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굳이 노동을 하기보다는 경치 자체가 더 중요한 요소였다.

기계적인 친국이나 야생 그대로의 자연도 그에게는 위협이었고 사색에 방해가 되었다. 자연이 너무 광활해도 그는 자신이 너무 왜소하게 느껴서 위협적이었고, 너무 잘 나뉘어진 자연은 자연미의 조화를 상실해서 문제였다. 자연과 문명이 교차하면서 자연의 자연스러움이 나뉘대로 유지되는 원은 숲과 같은 지역이 그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하는 이상적 공간이었다. 갓 경작되는 공간, 이 공간이 주는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러한 것이 소로우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 너무 통제되지 아니한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은 그의 상상력을 오히려 옅어매었다. 어느 정도 절제된 자연의 모습이 소로우에게는 이상적 자연이었다.

우리가 자연과 생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거나 미관을 고려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와 인간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사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생태계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다. 우리가 목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됨을 이 시들은 강조하고 있다. 워즈워스의 시와 소로우의 작품은 우리에게 인간과 자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효용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운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작가가 자연에 대해 가졌던 이 같은 생태적 상상력에서 현대의 자연경시풍조 내지는 자연 훼손이 가져올 재앙을 예견하고, 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자연의 엄청난 복수를 막는 지혜를 배울 것을 말하는 듯하다.

참고문헌

- Bate, Jonathan. *Romantic Ecology: Wordsworth and the Environmental Tradition*. London: Routledge, 1991.
- Bloom, Harold. *Poetry and Repression: Revisionism from Blake to Stevens*. New Haven: Yale UP, 1976.
- (Henry D. Thoreau, "Walking" in *The Portable Thoreau* ed. Carl Bode (New York: Viking, 1964), p.615)
- Buell, Lawrence. *The Environmental Imagination: Thoreau, Nature Writing, and the Formation of American Culture*. Cambridge: Harvard U. Press, 1996.
- Cain, William E. Ed. *A Historical Guide to Henry David Thoreau*. Oxford: Oxford U. Press, 2000.
- Cameron, Sharon. *Writing Nature: Henry Thoreau's Journal*. Chicago: U. of Chicago Press, 1985.
- Curtis, Jared. Ed. *The Fenwick Notes of William Wordsworth*. London: Bristol Classical Press, 1993.
- Foerster, Norman. *Nature in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Macmillan, 1923.
- Ferguson, Frances. *Solitude and the Sublime*. London: Routledge, 1992.
- Glotfelty, Cheryl & Harold Fromm. Eds.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Athens: U of Georgia P, 1996.
- Hartman, Geoffrey H. *Wordsworth's Poetry 1787-1814*. New Haven: Yale UP, 1964.
- Kortelling, Jacomina. *Mysticism in Blake and Wordsworth*. New York:

- Haskell House, 1966.
- Lovelock, James. *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Oxford: OUP, 1987.
- McCann, Jerome J. *The Romantic Ideology: A Critical Investigation*. Chicago: U. of Chicago Press, 1983.
- Myerson, Joel,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enry David Thoreau*. Cambridge: Cambridge U. Press, 1995.
- Purkis, John. *A Preface to Wordsworth*. London: Longman, 1970.
- Ramsey, Jonathan. "Wordsworth and the Childhood of Language." *Criticism* 18(1976): 243-255.
- Richardson, Robert D, Jr. *Henry Thoreau: A Life of the Mind*.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1986.
- Thoreau, Henry D. "Walking" in *The Portable Thoreau* ed. Carl Bode. New York: Viking, 1964.
- _____. "Paradise (To Be) Regained," *A Yankee in Canada* 1892, rpt., New York: Greenwood, 1969.
- _____. *Walden*. ed. Joseph Wood Krutch.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0.
- Wordsworth, Jonathan. et al., eds. *The Prelude 1799, 1805, 1850. Authoritative Texts, Contexts, and Reception, Recent Critical Essays*. New York: Norton, 1979.
- Wordsworth, William. *Wordsworth: Poetical Works*. Ernest De Selincourt. Ed. Rev. ed. Oxford: OUP, 1981.
- Worster, Donald. *Nature's Economy: A History of Ecological Ideas*. Cambridge: Cambridge U. Press, 1994.